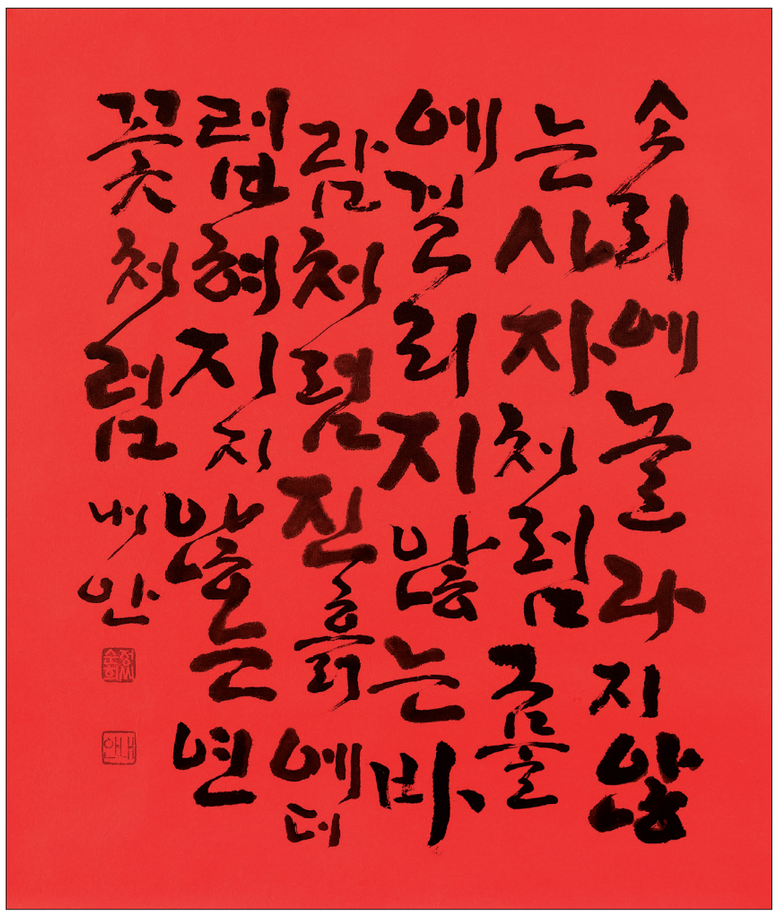
현대적 조형성 가미한 '서체 추상' 선보여

정순희 개인전 '한글서예전' 한국미술관 5월 11~17일

서예인생 40년 정리, '숫타니파타' 등 80여 점 선보여
궁체정자, 서체추상 등 다양한 한글 서체로 작품구성
힘찬 기세 · 자연미 형질 등 글자 독특한 리듬감 부여


정순희 作, 불교경전(숫타니파타)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2020년 어느 봄날 우연히 단체전에 출품할 작품을 찾다가 한 귀퉁이에 방치되어 있는 커다란 작품의 묶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들을 열어보니 17년 전(2005년)에 써두었던 작품들을 비롯하여 대략 10여 년 전에 스스럼없이 시간 나는 대로 평소에 써 두었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예계에서 40여 년 동안 활동해온 한글서예의 흔적들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개인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인 내안 정순희 작가가 서예 인생 40년을 정리하는 개인전을 연다.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리는 '내안 정순희 한글서예전'이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불교경전(숫타니파타)', '한용운 글' 등 전통 한글서예의 창제정신과 미학적 특성을 잘 드러낸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서예는 조형의 범주로만 여겨서는 안 되며 살아 숨 쉬는 생명력과 기운생동하는 필획으로 순수하고 소박한 느낌과 품격이 있는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는 옛 선인들의 서법을 늘 간직하며 한글서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전시 작품들을 보면서 아직도 먼 것을 느끼며 한글서예 공부의 어려움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서예 인생 40년을 돌아보고 서예가로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며 앞으로의 작업에 대해 깊은 모색의 시간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이번에 전시는 궁체정자, 궁체흘림, 판본체, 자유체, 서체추상 등 다양한 한글서체의 작품들로 구성됐다. 전통적인 기법과 격식에 맞는 작품들과 전통적 형식 위에 현대적인 미감을 접목한 새롭고 실험적인 형태의 작품들도 있다. 전통적인 작품들은 한글 고전 자료의 임서(교본을 보고 모방함)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연찬한 후에 창작의 과정을 거쳤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작품들은 정형화된 기존 한글서체의 형태를 벗어나 자유분방한 운필과 정 작가만의 색깔이 돋보이는 새로운 문자체계를 보여준다. 또한 서예의 기본 재료인 먹과 여러 가지 채색의 혼용을 시도했으며, 전통적인 한글서예에서 과감히 벗어나 현대적인 조형성을 가미해 추상화에 가까운 '서체추상'의 세계도 보여준다. 정 작가는 전통 서예를 지속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조형의 작품에 대한 시도를 계속 이어나간다. 한글서예를 이용한 추상회화라고 할 수 있는 서체추상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한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전통서예와 현대적 미감의 교감을 통하여 한글서예의 폭을 넓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정 권창륜 작가는 작품집 서문에서 "특히 근자에 와서 시도하는 문자추상은 기존의 법리(法理)와 상(像)을 모두 잊어버리고 무극(無極)의 혼돈 속으로 회귀하여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에서 유영하는 경지에 이르렀음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철학 사유의 기추를 백분 효용하여 자신만의 예술형상을 담아내었다고 하겠다. 박소(朴素)한 원형질을 찾고자 펄펄 끓는 용광로 속으로 빠져들어가 절대적 미로서 영원무궁한 우주의 원기를 나타내고자 고심한 흔적의 발로라 여겨진다."고 평했다.

정 작자의 작품은 한글에 담긴 음양의 상호 작용을 통한 무한한 생명의 운동성 등 한글서예가 갖추어야 할 힘찬 기세와 자연미의 형질을 아름다운 선조로 드러냄으로써 생동감이 돋보인다. 글자와 글자 사이에 견사(牽絲)를 줌으로써 글자와 글자의 연결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 자간의 연결과 흐름에 독특한 리듬감이 부여되고, 유창하면서 힘이 있어 운치가 넘친다. 대소강약의 변화와 지속의 변화 역시 활달하여 가독성이 좋다. 흘림 글씨와 흘림이 아닌 글씨도 견사로 연결해 전체적으로 흘림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견사는 하나의 글자 안에서 자모음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하나의 글자에서 다음 글자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자간의 경우 다음 글자의 시작점에 도달하여 일정한 기의 흐름을 이어간다. 이를 활용하여 견사가 없는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좌우 변화의 배치로 융통해 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정순희 작가는 서울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미술교육 전공)을 졸업했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과 킨텍스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70여 회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서울교육대학교, 한성대학교, 수원대학교, 강남대학교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국제서법 예술연합 한국본부 이사, 서울미술협회 서예분과 이사, 대한민국서예문인화총연합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5대 한국불교학회장에 백도수 교수 선출

"신뢰받으며 배우고 가르치는 학회 만들겠다"



백도수 능인대학원대 불교학과 교수<사진>가 한국불교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한국불교학회는 4월 29일 오후 5시 서울 동국대 혜화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백 교수를 제2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40명(위임 125명)이 참석했으며, 백 교수는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와 경선 결과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백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국불교학회 회원들의 성원에 의해 당선됐다. 감사드린다"며 "한국불교학회가 조금 더 불교 발전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백 교수는 "신뢰받으며, 배우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학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백 교수는 "법인이사와 운영위원, 편집위원, 회원들과 소통을 원만히 진행하고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회원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편집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해 자율적 선택권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승가의 참여도 확대할 뜻을 밝혔다. 백 교수는 "승가와 재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승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승가와 재가학자가 함께 공부하고 연찬하며 현재 불교계의 제반 사항에 대한 학문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사를 원만히 추진하고, 유튜브와 웹툰 등으로 한국불교학회 학술 자료를 대중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백도수 교수는 동국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크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조계종 포교원 포교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능인대학원대 교수와 월정사 화엄선연구소 책임연구자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근대제주불교사 정립해 '봉려관 스님' 조명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5월 21일 한라대 다목적홀서 '학술 세미나'

근대 제주불교역사 정립을 통해 봉려관 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되짚는 세미나가 열린다. 봉려관 스님은 1900년대 제주도에 불교의 씨앗을 심고 싹틔운 주역이었지만, 그동안 일부 왜곡 · 축소돼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다.

사단법인 봉려관불교문화원(원장 혜달)은 5월 21일 오후 2시 한라대 한라아트홀 다목적홀에서 '근대제주불교역사 그리고 그 진실을 찾다Ⅱ'를 주제로 2022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두옥문도회와 하동 무소암, 울주 백련사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제주항일운동, 봉려관 스님의 사회활동, 법정사 항일유적지에 대한 연구고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이 '제주항일운동연구의 성찰과 과제_역사인식과 방법론을 중심으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이성수 동국대 박사(불교신문 부장)가 '격동기 근대제주사회에 여명 밝힌 봉려관 연구_대사회활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열린논단은 법정사 항일유적지 고찰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허남춘 국립제주대 국문과 교수를 좌장으로, 상민 스님(제주 쌍계암),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국립대만사범대 박사), 서경순 부경대 대마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열린논단을 통해 제주향토사 연구가인 한상복 씨의 연구결과물이 발표될 예정이며, 법정사 항일유적지와 관련한 유의미한 증언도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봉려관 스님은 근대 제주불교를 태동케 한 주역으로 인식된다. 봉려관문화연구원에 따르면 조선시대 이후 200여년간 지속된 제주 불교의 암흑기 속에서, 1908년 스님이 산천단에서 봉행한 부처님오신날 공식행사는 근대제주불교의 시작을 알린 울림이었다. 봉려관 스님은 이후 30년간 10여개의 사찰을 창건 · 중창했고 유치원과 중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지원과 기근 구제활동은 물론 법정사를 토대로 항일운동에도 앞장섰다. 그럼에도 오랜 세월 역사 속에 감춰진 채 구전으로 내려오다 근래에 와서야 제대로 된 연구조사가 시작됐다.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봉려관 스님의 업적과 생애는 2002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왜곡과 침탈이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조명이 되지 못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선원
일체제불의 자비와 사랑은 일체중생의 자비와 사랑이다.
-대행선사 법어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전화 043)877-5000 팩스 043)877-2900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기쁨정사
주지 지인
사부대중일동
부처님땅 한평불사 108만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305번길 129 전화 031)974-8550